

스페인 산업안전보건 전략 2007-2012

동 전략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자치구가 합의한 전략이다. 정부와 함께 이 대표들은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구성한다.

2007년 6월 29일 각료회의는 노동사회부(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가 상정한 스페인 산업안전보건 전략(Spanish Strategy on Safety and Health at Work)을 승인하였다. 그 전날에는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였다. 이 상정안은 2004년 4월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발생 건수를 줄일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스페인 총리의 공약을 지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2005년 2월 “업무상 위험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원탁회의”(Round Table on Social Dialogue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Risks)는 스페인 산업안전보건 전략(Spanish Strategy on Safety and Health at Work)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자치구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4월에 사회노동부는 각료회의가 승인했던 산업안전보건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스페인 산업안전보건 전략을 향해”라는 문서가 포함되었다.

그 후 정부는 동 전략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채택하였고, 최종안에 합의하기 위한 대화를 사회구성원 및 자치구들과 지속하였다. 이런 활동은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지를 받았다.

2007-2012 스페인 산업안전보건 전략은 단기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업무상 위험 예방을 위한 포괄적 정책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 목적은 산업안전 예방의 모든 주요 주체가 수립하는 산업안전보건 방안에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구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목표 두 가지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환의 발생 건수를 줄이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 이러한 범위의 전략을 제시한 것은 스페인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07-2012 유럽공동체 산업안전보건 전략에 발맞춰 통합적, 합리적, 일관적인 방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문제에 대처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특징

동 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모두가 합의하고 모두를 위한 전략.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대표들(정부, 자치구, 노조 및 사업주 단체)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발생 건수 감소에 일조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는 강도 높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가능해진 일이었다.
- 광범위한 전략. 5년의 실시 기간 외에도, 위험 예방 정책 및 관행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교육, 훈련, 연구, 개발, 혁신, 보건, 의식 고양 캠페인, 기업을 위한 방안, 근로자를 위한 방안, 예방 서비스 방안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방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 중소기업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발생 건수 감소의 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 예방의 질과 효율성에 대한 실천 의지. 기업 내에서 더 많은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예방 활동의 질도 확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및 사업주, 조합 및 사업주 단체들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위험 예방 의무 준수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 달성하여야 할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업 내 업무상 위험 예방에 관한 목표, 그리고 둘째, 행정 당국을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문제를 공략하기 위한 공공 정책에 관한 목표이다.

기업 내 업무상 위험 예방에 관한 목표

목표 1. 특히 중소기업에서 위험 예방 법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 중소기업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는 간소화되고, 예방 활동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발생률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기여금 감액 또는 보상금 체계를 도입한다.

-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발생률이 높은 기업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제도가 실시된다.
- 자영업자들의 위험 예방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사고 수치상 기계 설비 현대화가 필요한 부문에서 구형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보상교환 제도를 도입한다.

목표 2. 특히 전문 기관의 예방 체계 효과성 및 질을 개선한다.

- 자체 예방 자원이 있는 기업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 감액과 함께, 예방 작업에 종사하거나 예방 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계약에 대한 기여금 감액 혜택을 보게 된다.
- 질과 효과의 기준을 정하여 (전문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외부 예방 서비스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정도 변수(quality parameter)를 사용하여 평가 체계를 수립한다.
-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목표 3. 산업안전보건 개선에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역할과 근로자 및 사업주의 참여를 강화한다.

- 산별 단체교섭을 활용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로 구성되는 업종별 기구 창설을 협상하고 업계의 업무상 위험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근로자 대표가 없는 근로자 6인 내지 50인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위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 지역별 단체 교섭을 활용하여 사업주 및 노조 단체 및 자치구 간에 유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발생 건수 감소를 위한 공공 정책에 관한 목표

목표 4. 스페인 사회 내에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강화한다.

- 출퇴근 시 또는 업무 관련 이동 시의 산업재해 등 이동성에 관련한 위험성 및

사회심리학적 위험성에 특히 유의한다.

- 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위험 예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한다.
- 이 분야에 관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사회 의식 캠페인을 진행한다(매년 전국적 캠페인 실시).

목표 5. 산업안전보건 안내 및 연구 체계를 개선한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정보의 질을 개선하고 유럽연합이 공개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 산업안전보건 일소를 위해 그 원인 규명에 연구개발혁신 활동의 초점을 둔다.
- 전국 근로환경관측소(National Observatory of Working Conditions)와 함께 위험 예방 연구를 위한 공공 기관망을 설립한다.

목표 6. 업무상 위험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 국가 업무상 위험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 직업보수교육과 대학 교육 양측에서 위험 예방 교육을 개선한다.
- 자영업자들에게 업무상 위험 예방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목표 7. 업무상 위험 예방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을 보강한다.

- 국립산업안전보건원(National Institute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을 개혁 및 강화하여 연구 기능, 기술 지원, 그리고 자치구 공조 및 협력 역량을 강화한다.
- 노동사회보장검사단(Labour and Social Security Inspectorate) 인원을 충원하여, 계획된 캠페인 및 프로그램의 형태로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직업위험예방재단(Foundation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Risks)을 강화한다.

목표 8. 업무상 위험 예방의 기관간 공조 체계를 개선한다.

-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위험 예방에 관련한 공공 정책 및 방안에 관한 협력 및 조율을 위한 기구로서 기술/합동 위원단을 설치한다.
- 산업안전보건에 특화된 검찰 조직, 자치구의 노동 당국 및 노동사회보장검사단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이 모든 분야의 방안들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